

第11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開會式
本會議會議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 2001年11月26日(月) 午前 11時05分 開式

第117回鐘路區議會(定例會)開會式順

1. 開 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齊唱

1.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 式

(司會 議事業務擔當主事 張慶洙)

(11時05分 開式)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지금부터 제1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었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 齊唱이 있습니다. 錄音된 전주에 따라 1절만 齊唱해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護國英靈에 대한 默念이 있습니다.

(一同 默念)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 着席)

○議長 金以煥 존경하고 친애하는 우리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지역주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해 명예직으로서 오직 공지와 사명감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종로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鄭興鎭 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지역주민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금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구정전반에 대해 운영

을 살펴보고 내년도의 업무계획을 확정짓는 뜻깊은 제117회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또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첫해인 올해는 반문명적이며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인류공동의 적인 대규모 테러행위로 인한 대참사와 그에 따른 보복전쟁으로 얼룩진 한해였고 국·내외 정세는 테러에 대한 새로운 불안과 경제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의 감시자로서 그리고 정책 결정자로서의 소임을 다하며 구정발전을 도모하고 진정한 지방자치체 실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행복이 샘솟는 아름다운 종로건설”을 위해 집행부 모든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결과 광고물정비평가 등 각 분야별 외부기관의 심사에서 좋은 성적을 견어 이에 따른 많은 상금으로 구채정 수입 확충에 기여한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인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3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방자치 실시를 앞둔 10년 전에 우려되는 부정적인 부분들이 그동안 꾸준한 노력으로 많이 개선 또는 해결되어 이제는

지방자치체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바람직한 모습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는 가면 갈수록 집행부인 자치단체에 비해 권한이 협소하여 지고, 의원들의 위상 또한 작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예산안의 편성과 제출권이 집행부에게만 부여되어 있음은 물론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결사항과 주요 정책들이 대부분 집행부에서 제출되어 의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의안이나 심의하고 통과시키는 수동적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는 심의기관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은 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의 권한의 협소와 집행기관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행법안에서 의원들이 집행부의 주요 정책분야 등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많은 대안을 개발하여 의원발의로 제안할 수도 있고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수준 높은 대체안을 마련하여 제기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의 비전문가이면서 무보수 명예직 신분인 우리의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가 자치단체의 최고 정책형성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 식견이 있는 유능한 지방의원 육성과 활발한 의정활동 보장 등을 위한 지방의원 유급제 실시와 집행기관을 의식하지 않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 지원하고 업무의 계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이 의회회장이 갖도록 하는 관계법개정들이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회의는 우리임을 통해 마지막으로 맞게되는 정례회로써 2002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결산한다는데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가장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증진을 모색하는데 중점

을 두고 낭비요인이 철저히 배제되는 알뜰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중지를 모아 심도있게 다루어 한번 지적된 사항이 반복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심사와 모든 예산이 주민의 피땀어린 혈세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주민의 세금이 조금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혼신의 주의를 기울여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 회기 중에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에 있어서는 구정운영 전반을 꼼꼼히 살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모색하는 일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6회 임시회시 충분한 사전준비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탁월하신 역할이 발휘되어 이번 정례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마지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제3대 의회 임기도 얼마 남겨 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 모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민의의 전당인 이 자리로 보내기 위해 선출하여 주신 19만 주민의 기대에 얼마나 충실하게 부응했는지에 대하여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생각하여 보면서 주민을 위해 좀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다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면 이번 정례회를 비롯한 잔여 임기동안 주민의 진정한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맺음이 더욱 중요하듯이 우리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뜻에서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117회 정례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동료의원 모두가 진지하고 열성적인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어려운 현실이나 복지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있으시길 당부 드리며 아울러 24일의 장기간 정례회 일정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겨울철 환절기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이번 정례회가 마무리되기

를 기대해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2차 정례회 개최식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개최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事擔當主事 張慶洙 이상으로 제117회 종로구의회 정례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1時21分 閉式)

○出席議員數 18人

○出席關係公務員

區 廳 長	鄭興鎮
副 區 廳 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 務 局 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建設交通局長	康亨宇
保 健 所 長	李星世

